

인터뷰 시험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 연구*

지현숙**

1. 들어가기

지금까지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의 탐구는 주로 제2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이 같은 노력은 평가도구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과 평가 수행에 대한 해석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초기 모델들은 인간의 언어 지식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설명하였지만 각 성분의 역할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McNamara 1996).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Hymes(1972)로부터 Bachman(1996)에 이르기까지의 모델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더 쪼개고 자세히 분석

* 본고는 연구자가 한국응용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2005. 11. 19)에서 발표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근간으로 하였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하면 할수록 평가에서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전제하고 있다. 세분화한 분석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에서 구인¹⁾으로 삼아야 할 것은 더욱 많아진다. 이에 대해서 Widdowson(2001)에서는 의사소통을 그 본질에 맞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 측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모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소통 기저능력은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같은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들을 넓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사소통 구성 요소 가운데 특정 평가도구에 대해 무엇이 핵심적이고 중요한가를 선별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어 기능인 말하기, 듣기의 측면에서 구인을 정의하기보다는 ‘구인의 정의와 관련된’ 언어 능력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구인을 결정함으로써 평가 과제의 특성이 도출되고,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적 요소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영어 말하기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호작용 능력 이론(Interactional Competence Theory: ICT)’을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접근법으로 적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1980년대 후반 Kramsch(1986b)를 시작으로 Hall(1993, 1995), Young(1998), Fulcher(2003), Johnson(2004)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언어 능력은 특정한 맥락, 대화참여자 간의 결합 구조, 현장성 등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말하기(speaking)는 ‘말 행위(speech behavior)’이다. 즉, 말(speech)을 ‘하는 것(ing)’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 것이 ‘말하기(speaking)’이다. 연구자가 본고에서 ‘말하기’라 하지 않고 굳이 ‘구어 능력(oral ability)’으로 표현

1) 구인(construct)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혹은 특성들(the trait or traits that a test is intended to measure)”을 의미한다(Dictionary of Language Testing, 1999).

한 이유는 말하기는 개인 내 말하기 행위만을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낸 것 일 뿐 대인간 의사소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구어 능력을 개인의 의사소통적 말하기 능력 외에도 말순서의 경영, 대화 협력 및 재구조화 등의 전략 능력 등이 포함된 상호작용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대학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기말에 시행된 인터뷰 시험의 담화 분석이다. 연구자는 시험 담화에서 평가자와 수험자 각각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대화의 결합적 구조와 대화 참여의 틀을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자는 구어 능력 평가는 수험자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과 구어 상호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시험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인터뷰 시험에서 실제로 수행된 담화를 전사하고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은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말하기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인터뷰 시험 상황이 구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소통되는 상황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아직은 연구 성과가 미약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작용 능력 이론’이 구어 능력 평가에서의 구인과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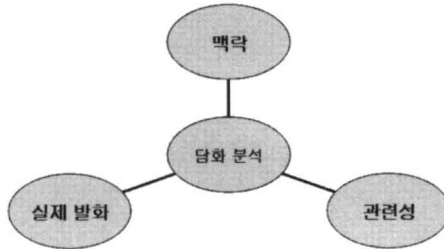
2.1. 담화 분석과 상호작용 능력 이론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DA)은 제2언어 연구나 외국어교육 연구

의 주요 분야이자 응용언어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Nunan(1991)에서는 담화 분석, 상호작용 분석, 대화 분석이 각각의 연구 방법론이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범주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조점의 차이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상호작용 능력 이론의 연구 방법론으로 담화 분석, 대화 분석, 체계 기능주의 언어학, 언어인류학, 화용론, 민족지학 등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담화 분석은 미리 정한 분석 범주를 쓴다는 점에서 대화 분석 및 상호작용 분석과 구분된다고 보아 연구 방법을 ‘담화 분석’으로 정하기로 하겠다.

담화 분석은 구두 상호작용에서 대화참여자들이 실제로 말한 ‘발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발화는 불완전한 문장과 잘못된 문장, 생략된 표현이나 실수,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등으로 섞여 있다. 이런 발화를 제대로 해석해 내고 왜 그러한 발화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맥락’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짚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맥락은 일종의 사회문화적인 틀로서 발화를 해석하기 위한 단초가 되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을 결정짓는다.

이 때문에 담화 분석은 ‘관련성’을 중시한다.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왜 다른 맥락에서는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거나 덜 일어나는지에 관한 해답은 그 행위가 발생한 숫자를 계량화하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담화 분석은 바로 이 맥락 중심의 접근 방법을 지향한다. 즉, 담화 분석은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닌, 조건적 관련성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중의 발화를 연구하는 것이다(Schegloff 1999, 진제희 2004 재인용). 그러므로 담화 분석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래의 그림처럼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담화 분석의 고려 대상

연구자는 외국인의 인터뷰 시험 담화를 분석할 때 ‘맥락’과 ‘관련성’을 핵심적인 고려 사항으로 삼고 평가자인 교사와 수험자인 학습자가 실제 대화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상호작용 능력 이론에서의 담화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생산된 통일적, 완결적, 맥락 중심적 특성의 언어표현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담화는 “표현을 넘어서는 행위(discourse is a action not merely representation)”이며,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 모델에 입각한 시험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Fulcher 2003). 인간의 인지는 사회적 정체성들이 담화공동체 안에서 구조화되고 수행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된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이 같은 사회적 정체성과 담화공동체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업, 직장에서 한국인 상사와의 대화, 외국인 유학생의 지도교수와의 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 연습 상황을 통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구어 담화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적 특징이 있다.

첫째, 안부 인사, 초대, 제안, 사과, 설득 등과 같은 특정한 상호작용 유형이 있다.

둘째,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다. 예컨대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대화가 조직되며, 대화의 가장 처음은 개시하기의 말(openings)로, 끝은 종료하기 말(closing)로 마무리된다.

셋째, 말의 맥락과 관련되는 구어 사용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이는 맥락과 대화상대자 등에 따라 격식의 정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 등과 관련된다.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맥락에 대한 배려가 한국어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속도와 자동성(automaticity)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어 구어 의사소통에서는 말을 통해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하고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상호작용해야 하는가를 즉각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문제가 작용한다. 대화참여자는 화제는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떻게 불러야 하나, 언제 끼어들어야 하는가, 어떤 비유를 써서 말하는 게 나올까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또 어떤 대화상대자가 휴지(pause)를 강하게 드러내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석하면서 의사소통해야 한다.

구어 능력 평가의 관점에서 의사소통 능력 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해 가는가의 습득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습득론과 관련한 Chomsky, Hymes, Canale & Swain, Bachman 등의 연구는 인간의 언어 '능력'과 '수행'을 이분법적이고 추상적으로 구분해왔다. 언어 능력 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Hymes(1972)는 상황 맥락과 언어 능력 양상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사회언어학적 적합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의사소통의 실례에 해당되는 능력을 포함하여 언어 지식과 언어 수행의 일반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Hymes는 Chomsky의 기저능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 개념을 구별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Chomsky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정교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Canale & Swain(1980)의 연구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인 학습자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이 어떻게 의사소통에 기여하는가에 관하여 폐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의사소통할 때의 능력(ability), 행위(action), 활동(activity) 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합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기존의 습득론 연구자들은 언어 능력은 인간 내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일시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언어 수행은 대인간적(interpersonal)이고 실제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인간 속에 내재한 것(지식, 능력, 가능성)과 외재한 것(상호작용, 의사소통, 구조적 결합)은 유동적이다. 이들은 상호작용한다(Fulcher 2003).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Vygotsky의 사회문화적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²⁾ 이는 인간의 변화무쌍한 일상사가 가진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해명하고, 대화참여자 구성 요소들이 결합된 일상사들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인간의 언어 능력은 특정한 환경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상호작용은 인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언어 체계를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상호작용적 맥락과 분리하여 본다. 마치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림의 배경과 주된 대상인 정물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Young 2004).

상호작용 능력은 주로 화자가 어떻게 말하기의 순서를 짜고 순차적으로 조직하고 말순서 취하기(turn taking)나 전략들을 생성하는가에 관한 관점에서 얘기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종래의 의사소통 능

2)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 SCT)에서는 인지적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상호작용의 개념을 정의했을 뿐이다.

력 모델의 모호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것은 이전의 인지주의 언어 연구의 주된 경향인 어떻게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어떻게 진실과 도덕이 담화 내에서 성립되고 협상되고 유지되고 도전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론이다(Young 1999).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대화의 결합 구조(co-construction)와 현장성(locality), 특정 맥락 등의 특성들이 일종의 언어 연습과도 같은 일상사를 통해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뛰어넘어서 대화참여자의 구어 상호작용의 핵심이 드러나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시험을 설계할 때 대화참여자가 상호작용적인 맥락 안에서 대화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을 특정 짓고 목록화하여 평가의 구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구인 기반 접근법에 매우 실제적이고 분명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⁴⁾

2.2. 분석 자료 개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3년 한 해 동안 A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과 B대학교 한국어 강좌에서 기말 성취도 평가로 시행한 인터뷰 시험을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⁵⁾ A기관의 인터뷰는 600시간-800시간 동안

-
- 3) 대화상대, 평가자(accessor), 면접관(interviewer) 등의 개념을 담고 있는 ‘대화참여자(interlocutor)’는 언어 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제 기반 시험(task-based test)에서는 수험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기도 하므로 각 수험자는 다른 수험자를 위해 대화참여자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Alan Davis 외 1999)
 - 4)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제(task)를 중심으로 한 실세계 접근법(real-world approach)과 습득론, 중간언어이론 등의 이론에서 비롯된 구인 기반 접근법(construct-based approach)이 그것이다.
 - 5) 연구자는 이 시험 답화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평가자와 수험자로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당 학기에 수험자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B대학교의 경우는 한 학기(16주), 약 90시간의 ‘초급한국어1’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의 학기말 말하기 시험으로서 해당 강의를 맡은 교수에 의해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인터뷰 담화는 모두 여섯 명의 수험자와 세 명의 평가자에 의해 별도로 수행된 것이며, 전사한 담화의 전체 길이는 79분 40초이다.⁶⁾

2.3. 담화 분석 결과 및 논의점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구어를 사용하는 수험자의 능력을 추론하고 해석해 내는 것이다. 상호작용은 개인 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참여자에 의해 상호 결합되는 무엇이다. He and Young(1998)은 대화참여자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 수사적 대본에 대한 지식(특정 의사소통 목적에 전형적인 화행의 순서)
- 특정 어휘부와 통사적 구조
- 대화순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 주제를 감당하기 위한 전략
- 신호화하기 위한 경계들(주제 개시, 주제 마무리 및 상호작용)

부터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 자료들은 오로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한다.

6) 담화 분석 연구방법론에서는 담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에게 중복 분석을 하도록 하는 ‘동료 확인법(Peer check)’이나 발화자에게 발화 의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재확인법(Debriefing)’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eer check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인터뷰 시험 담화를 전체 구조, 말순서 취하기, 인접쌍, 주제 주도성 등의 양상들로 나누어 분석하고 살펴보겠다.

23.1. 인터뷰 시험 담화의 전체 구조

여기에서 인터뷰 시험 담화의 전체 구조가 어떠한가를 논의하는 데에는 모두 네 개의 인터뷰 전사 자료가 인용될 것이다. 수험자 IS01과 IS02는 공통적으로 600시간의 학습기간을 거친 학습자이다. IS01은 20대 후반 일본인 여성이며, IS02는 20대 후반 대만 여성 학습자이다. IS03은 1,000시간 가량 한국어를 학습한 스코틀랜드 남성이며, NJ04는 90시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부 유학생이다. 인터뷰 시험을 본 네 사람 모두 수험자로서 해야 할 바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계적인 말의 생산을 보여주고 있다. 전사 자료의 발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사람의 구어 능력은 차이가 크다. 여기에서는 수험자 각각의 언어 구조적 능력보다는 대화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험의 담화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진다고 보았다.

말 개시(Openings) ⇒ 상대에 대한 파악(Identify) ⇒ 과제 제시와 해결하기(task taking) ⇒ 종료(Closing)

(1) 말 개시하기

평가자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에게 스스로를 소개해 보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을 개시하고 있다. 이는 시험 전에 편안한 분

위기를 조성하고 대략적인 구어 사용 수준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자 IS01의 시험 대화에서 평가자의 말 개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IS01의 담화 발체

IR :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00 씨, 잘 몰라서.....

IE :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작년 시월에 왔거든요. 한국, 작년 시월에 와서, 여기서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공부한 지 팔 개월쯤 되었어요.

(2) 상대에 대한 파악

‘상대에 대한 파악’은 말 개시하기의 다음 단계로, 평가자는 수험자의 신상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한다. 주로 어디에서 사는지, 수업 후에 뭘 하는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하는지 등을 묻는다. 평가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묻고, 수험자는 평가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대화가 반복된다. 이러한 대화 구조는 실제 대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상 대화에서는 결코 대화참여자 한 명은 묻는 일만 반복하고 나머지 한 명은 계속 대답만 하는 취조형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 NJ04의 담화 발체

IR : 언제 한국에 왔어요?

IE : 음, 작년 구월, 구월.

IR : 구월?

IE : 구월에 한국에서 왔어요.

IR : 한국에 왔어요. 맨 처음 어디 갔어요?

IE : 서울시내에 하고, 에버랜드하고, 용인시내 (0.3)갔어요.

IR : 한국에 왜 왔어요?

IE : 음(0.4), 저는 한국문화 좋아해요.

담화 발췌문에서와 같이, 수험자의 대답을 통해서 구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화참여자간 상호결합이나 맥락을 중시하는 실제 일상 대화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과제 제시와 해결하기(task taking)

IS01과의 인터뷰 시험에서 평가자는 대략적으로 다섯 개의 평가 과제를 수험자에게 묻고 있다. 첫째가 한국에 온 후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둘째,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는 순서, 셋째,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배운 교과 내용 넷째, 복날에 먹는 음식 다섯째, 방학 계획 등이 그것이다. 첫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에서 수행된 담화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S01의 담화 발췌1

IR : 한국에 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있어요?

IE : 아 ~ 제가 한국 사람들은 좀 안 친절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년 전에 호주에서 유학했는데요, 그 때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다 안 친절했어요.

IR : 오, 그래요?

IE : 네. 그리고 특히 여자 엔데,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0.3) 어 다른 사람 별로 안,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학생들 만나면,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친절해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 IS01의 담화 발췌2

IR : 어, 다음에는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통장 만드는 과정 얘기해 보실래요?

IE : 저는, (.) 음, 이사 때문에 한국 은행에서 통장 만들어야 됐어요. 그 때

00은행 가서, 그리고 만들었는데 (0.5)음.....

IR : 어떤 식으로?

IE : 아, 어떤 말 했냐고요? 하냐고요? 어, 제가 여권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일본 사람인데, 통장 만들 수 있어요? 아, 있냐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안 친절한 줄 알았어요”, “안 친절했어요”에서와 같이 특정 단어를 유난히 강하게 발음하여 의미를 강조하려는 경향과, “여기에 와서 학생들 만나면,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과 같이 ‘단어 제조(word coinage)’의 성취 전략이 두드러진다. 수험자 IS01은 ‘대다수 일반인’을 의미하기 위해 학습자가 아는 어휘들을 총동원하여 나름의 새 단어를 만들어서 맥락 안에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성공시키고 있다. 또 “통장 만들 수 있어요? 아, 있냐고 했어요”나 “아, 어떤 말 했냐고요? 하냐고요?” 등과 같은 ‘다시 고쳐 말하기(restructuring)’ 전략을 써서 시제에 대한 자신의 결함을 보충하면서 과제를 해결하고 감당하였다.

(4) 종료하기

이 단계에서 평가자는 인터뷰 시험이라는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에 전형적인 화행의 순서를 준수하여 시험을 마치고 있다. 아래에 인용한 IS01이나 IS02, IS03의 인터뷰 종료 대화는 시험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거나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짤막한 평가적 표현, 작별 인사, 기원 등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뷰의 전체 구조 중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IS01의 담화 발체

IR : (소락) 휴가 잘 갔다가 만납시다. 오늘 너무 잘 하셨구요, 예, 다음 학기에 뵈게요.

IE : 감사합니다.

IR : 수고하셨습니다.

IE : 예~

• IS02의 담화 발체

IR :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잘 하셨구요.

IE : [아니예요 오, 오히려 선생님 감사합니다.

IR : 방학 때 잘 쉬시고 다음 학기에 만납시다.

• IS03의 담화 발체

IR : (소략)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IE : 어, 00 수업에서 학기 두 개 더 (0.2)암,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하고, 아 그 다음에는 00 복학할게요, 복학할 거예요. 아, 00대에 졸업한 후에는 어, 가능하면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취직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 어, 불경기? 불경기라서, 어음, (0.6)직업을 찾기가 아주 힘들지만 그때까지 아마 그, 경제도 좋아질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런 거예요.

IR : 예, 하시는 일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3.2. 말순서 취하기(Turn-taking)

말순서 취하기는 대화에서 어떻게 화자가 말할 권리를 획득하고, 어떻게 그 권리들이 협상되고 상호작용적으로 운용되며, 어떻게 다음 화자를 결정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말순서가 겹치게 되는가 등을 보여준다. 말순서 취하기의 규칙은 잠재적으로 이뤄지는 통사, 억양, 화용적 단위들과 같은 말순서 결합 단위(TCU: Turn-constructive units) 각각의 말미에 적용된다(신동일 외 2005).

말순서 취하기 부분에서 분석이 될 인터뷰 자료는 모두 다섯 개이다. 앞서 인터뷰 시험 담화의 전체 구조에 등장했던 IS01, IS03, NJ04 외에 수

험자 NJ05, IS06의 인터뷰 담화 전체가 전사되고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말순서 취하기의 양상을 말순서 길이, 말순서의 분포 및 내용, 다음 화자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1) 말순서의 길이(Length of Turns)

연구자는 수험자와 평가자가 수행한 말순서의 길이가 어떻게 차이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단어 수를 일일이 세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험자가 평가자보다 말순서의 길이가 1.6배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험자는 총 1,668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이에 비해 평가자는 1,022개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담화에서 수험자가 약 6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으며, 평가자보다 약 646개 정도의 더 많은 단어를 말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라는 특성이 수험자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험자에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도록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 인터뷰 시험 담화에서의 말순서의 길이-단어수

자료번호	수험자(IE)	평가자(IR)	합계
IS01	340	243	583
IS03	644	187	831
NJ04	121	83	204
NJ05	100	189	289
IS06	463	320	783
계	1,668	1,022	2,690

(2) 말순서의 분포 및 내용(Distribution and Content of Turn)

일상적 대화에서는 말순서의 분포, 말순서의 진행 절차, 말순서 길이 등은 교환보다 먼저 결정되지 않는다(Schegloff & Sacks, 1973). 그럼에도

한국어 인터뷰 시험 담화를 분석한 결과 말순서 교대는 고정적이었고, 대부분이 평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표 3]은 인터뷰 시험 동안 수험자와 평가자가 행한 질문과 대답의 수를 보여준다. 인터뷰 시험 상황에서 비슷한 말순서 횟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이 그대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⁷⁾

[표 2] 수험자 담화의 질문 및 대답 내용

자료 번호	질문			대답				질문-대답말 순서 합계
	정보 탐색	명료화	견해	문장	최소 응대	머뭇거림	회피	
IS01	2	5	1	22	6	0	1	36
IS03	2	6	0	18	0	0	0	26
NJ04	0	5	0	18	11	1	1	34
NJ05	0	0	0	15	5	1	0	20
IS06	3	2	0	48	1	1	2	54
계	7	18	1	121	23	3	4	170

[표 3] 평가자 담화의 질문 및 대답 내용

자료 번호	질문			대답				질문-대답말 순서 합계
	정보 탐색	명료화	견해	문장	최소 응대	머뭇거림	회피	
IS01	18	5	3	2	1	0	1	29
IS03	16	7	0	3	1	0	0	27
NJ04	22	12	0	1	3	0	0	40
NJ05	14	9	0	0	0	0	0	23
IS06	42	12	0	3	2	0	1	59
계	112	45	3	9	7	0	2	178

7) 의사소통이 실패한 경우, 머뭇거림, 회피 등은 전체 말순서 횟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 말순서수와 [표 2], [표 3] 질문-대답에서의 말순서 합계는 다를 수 있다.

(3) 다음 화자의 선택(Selection of Next Speaker)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에서 구어 능력 평가는 결코 수험자와 평가자 두 명으로 행해지는 시험 방식을 긍정할 수가 없다. 이상적으로는 수험자 두 명과 평가자 두 명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수험자 두 명과 평가자 한 명으로 이뤄지는 평가 방식이 적절하다.

인터뷰 담화를 분석해 보면 수험자는 수동적으로 선택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평가자가 대부분 다음 말할 사람을 정하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체 말순서에서 다음 화자를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가 17회 나타났는데 평가자가 321회 선택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비록 시험 상황이더라도 시험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구어 능력 시험에서의 대화참여자를 어떻게 정하고 안내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2.3.3. 인접쌍(Adjacency pairs)

인접쌍은 담화 분석의 주요 단위로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인사-인사, 질문-대답, 제안-수락, 요청-사양 등과 같이 말순서 교체에 의해 두 개의 발화로 수행되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인접쌍은 한번의 인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연결 장치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터뷰 시험 담화는 실제 일상 담화에서의 다양한 인접쌍 가운데 질문-대답 유형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험자는 26개의 질문을, 평가자는 160개의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자의 질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같은 경우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의 서양권 학습자이건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권 학습자이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언어 숙련도에 따라 중급 (IS01, IS03, IS06)이 초급(NJ04, NJ05)보다 다소 다양한 인접쌍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험자가 평가자에게 명료화나 견해 등을 묻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평가자가 확인을 시켜주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인접쌍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발췌문은 IS01의 것으로 수험자가 드물게 평가자에게 견해를 묻는 질문을 하는 담화를 보여준다.

IE : 제주도에서 돼지고기가 맛있다면서요?

IR : 네, 맛있어요. 네, 돼지고기가 좋아요.

IE : 아, 그래요? 유명해요?

IR : 유명해요.

IE : 저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인접쌍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평가자는 수험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최소한으로 응대하거나 심지어 응답을 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또한 동등하고 평등한 대화참여자 간의 인간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인터뷰를 보자.

IR : 음음음, 아, 음음 그래요? (0.5)00씨, 지금 창문이 어떻게? 지금 창문이 어때요?

IE : 불이 났어요, 제 생각에.

IR : 아니, 창문이?

IE : 창문이, 몰랐어요.

IR : [창문이, 창문이 지금 어때요? (큰 목소리로, 묘사하기를 요구) 이렇게, 이렇게.

IE : [아, 창문? 그 창문이? 그 창문이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평가자, 드르

르 창문을 연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네네 (0.7)

IE : 죄송한데요, 아, 네, 열렸어요.

IR : [아뇨, 아뇨, 00씨.

IE : [창문? 여기, 알아요, 알아요. 창문, 거것이, 네, 알아요.

IR : [00씨, 창문이? 창문이?

IE : 열렸어요.

IR : 필통 안에 볼펜이?

IE : 열렸어요. 열려졌어요, 열려, 아니, 아, 실례합니다. 열렸어요.

평가자는 지금 시험 과제의 하나인 피동형 표현하기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수험자는 창문이 지금 ‘닫혀있어요’와 같은 피동표현을 말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 시험 상황에서 사용할 만한 전략도 떠오르지 않는다. 수험자는 당황해 하면서 허둥대고 그런 자신을 사과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가자는 이런 수험자에게 계속해서 피동표현을 발화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말순서를 가지고 무엇인가 말하려는 찰나에도 말순서 뺏기를 하기도 한다. 인터뷰 시험 상황이 보여주는 억압적인 대화참여자 간의 인간관계를 침묵하게 보여주는 담화의 예이다.

2.3.4. 주제 주도성(topic nomination)

일상 회화에서는 대화참여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경우 주제를 도입할 수 있고 대화를 주도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터뷰 상황에서는 대화참여자의 일원인 수험자가 주제를 시작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평가자가 던진 질문에 무기력한 응답자로서의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뷰 시험 담화에서는 평가자가 주제를 통제하는 힘을 독점하고 이

를 행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

전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 화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직 평가자만이 다음 화자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가자는 수험자의 구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접쌍에서 첫 번째 말순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평가자만이 대화의 주제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드물게는 평가자가 수험자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중간에 말순서 가로채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결론 및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에서의 함의

이제 언어 능력 평가는 기존의 ‘측정(measurement)’ 중심에서 ‘추정(judgment)’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에서 구인에 관한 연구도 언어구조 능력과 전략 능력, 대화구조 및 화용 능력, 사회언어 능력 등을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능력을 추정하고 판단하여 보다 교육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외국인 학습자의 인터뷰 담화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구어 능력 평가는 수험자 혼자만의 말하기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은 진정한 구어 능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수험자 혼자만의 말하기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화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능력 이론의 핵심인 대화의 상호결합성은 구어 능력 시험

에서 누구와, 어떤 과제로 시험을 봤는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수험자와 수험자, 혹은 수험자와 평가자 간의 시험 수행은 실제 구어 의사소통을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이 반영된 형태로 드러나기에 구인은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실체로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구어 능력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인을 찾도록 하며 이들 간의 입체적인 관계를 규명하도록 만든다. 평가에서의 구인이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따라서 한국어 구어 능력 시험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구인의 정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구어 담화의 특성과 평가의 목적에 적합한 구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구어 담화의 주된 구성요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내부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구성요소만을 나열했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작용 능력 이론이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에 주는 함의는 외국인의 실제 '상호작용적 수행'을 평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평가개발자는 수험자가 경험하고 있는(혹은 경험하게 될) 특정하고 다양한 일상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평가 목적에 합당한 구인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시험 과제 또한 개발해 낼 수 있다.

넷째, 평소의 학습에서 진정한 대화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을 연습하도록 만든다. 상호작용 능력 이론은 구어 능력 시험 상황에서 수험자와 수험자, 수험자와 평가자는 서로 협력하고 공조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어떻게 대화참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최대한 다할 것인지를 학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의 구어 능력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블랙박스이다. 그러므로 구어 능력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구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평가가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연구자는 본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평가 이론을 주도해 온 의사소통 능력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호작용 능력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담화 분석과 구인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이론화를 꾀하여야 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참조

담화 분석에서 사용된 전사 자료의 기호⁸⁾

기호	설명
[왼쪽 [부호는 당시 화자의 말이 다른 말과 중복된 지점을 나타낸다.
(0.3)	괄호 속 숫자는 침묵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	괄호 속 구두점은 약 십분의 일 초 정도의 짧은 간격이 나타났음을 표시한다.
WORD	특정 단어가 진하게 표시된 경우는 다른 말에 비해 유독 크게 말했음을 나타낸다.
()	빈 괄호는 뭘 말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전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	말을 중단하는 억양을 표시한다.
,	말을 계속하려는 억양을 표시한다.
?	상승조 억양을 표시한다.
!	감탄조 억양을 표시한다.

[주제어] 성취도 검사, 구어 능력 평가, 의사소통 능력, 구인, 구인 기반 접근법, 담화 분석, 상호작용 능력 이론, 인터뷰, 말하기 시험

8) Silverman(2001)의 방식을 따랐다.

* 본 논문은 2005. 11. 28 투고되었으며, 2005. 12. 1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신동일·양태선·김종국(2005), "Understanding the Test Construct in an English Proficiency Interview", *Foreign Language Education* 12(4).
- 지현숙(2005),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새로운 관점」, 한국응용언어학회 2005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진체희(2004), 『한국어 교실 구두 상호작용에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협상』,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최정순·안미란(2005),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동 기본지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등급기술 시안(1)」,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6집.
- Alan Davis 외 (1999), *Dictionary of Language Tes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lenn Fulcher (2003), *Testing Second Language Speaking*, Longman.
- Kramsch, C. (1986), "From language proficiency to interactional competence." *Modern Language Journal*, 70.
- Marysia Johnson (2004), *A Philosoph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Yale University.
- McNamara, T. (1996), *Measuring second language performance*, 채선희 외 역, 『문항반응이론의 이론과 실제』, 서현사.
- McNamara, T. (2000), *Language Testing*, 강성우 외 역, 『언어평가』, 박이정.
- Hall, J. K. (1993), "The role of oral practices in the accomplishment of our everyday lives: The sociocultural dimension of interaction with implication for the learning of another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14(2).
- Hall, J. K. (1995), "(Re)creating our words with words: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of face to face interaction." *Applied Linguistics*, 16(2).

- Hughes, R.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Speaking*, Longman.
- Young, R. (1995), "Conversational styles in language proficiency interviews." *Language Learning*, 45.
- Young, R. (2000), "Interactional Competence: Challenges for Validity", Symposium on Interdisciplinary Interfaces with language Testing, UBC, Canada.
- Young, R., & Miller, E. (2004), "Learning as Changing Participation: Discourse Role in ESL Writing Conferenc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 iv.

■ Abstract

Understanding the Test Construct of Korean Oral Ability
through a Discourse Analysis of Korean Achievement
Interview Tests

Jee, Hyun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 new approach for assessing the oral ability of Korean learners. A construct needs to be designed or selected for testing that will strengthen the inferences. A face-to-face interview format could be used to elicit Korean language samples in oral ability testing. It is desirable to replicate Korean language use situations in oral testing, and an interview test is believed to assess more interactive and real language abilitie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speech samples from interview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natural oral communication settings.

This article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test constructs made through an interview which was adopted as a Korean achievement test. Data from the Korean interview test were analyzed in terms of how they were different from natural conversations. It was found that a construct of a Korean oral ability test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uthentic speech, specifically in the area of turn-taking, adjacency pairs, and topic nomination.

There are few attempts to provide a complete and systematic account of approaches to test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ut systematic accounts have been the testing of other languag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teractional

Competence Theory could be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many models of 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 with which most of language testing has worked.

This study shows that we need to take diverse construct-based approaches and discourse analysis into the Korean oral ability assessment because 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with oral language is a complex matter.

[Key Word] achievement test, assessing oral ability, communicative competence, construct, construct-based approaches, discourse analysis, Interactional Competence Theory, interview, speaking test